

“몸값 3년 588억”... 폰세 돈방석 예고



2025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코디 폰세(31·사진)가 계약기간 3년, 3000만~4000만 달러(약 441억~588억 원) 수준의 대우를 받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재입성할 것이라고 MLB닷컴이 2일(한국 시간) 보도했다.

MLB닷컴은 “한국에서 제도약한 폰세가 MLB로 복귀할 것”이라며 “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이라며 스포츠전문매체 디에스레틱을 인용해 구체적인 예상 계약 규모를 소개했다.

매체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 폰세가



MLB닷컴 “FA 시장서 큰 관심” 메이저리그 재입성 초읽기 보도
美 새 동지로 샌디에이고 유력
“선발 로테이션 난항, 폰세가 대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MLB닷컴은 “샌디에이고는 선발 로테이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폰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LB닷컴은 폰세의 기량 발전도 조명했다. 매체는 “폰세의 직구 구속은

MLB에서 펠 때보다 시속 2마일(약 3km) 정도 빨라졌고, 스피리터를 새 구종으로 삼아 탈삼진 능력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폰세는 메릴 켈리, 에릭 페디처럼 KBO리그에서 뛰 뒤 MLB로 복귀하는 투수가 될 것”이라며 “폰세는 MLB 복귀 당시 2년 1500만 달러에 계약한 페디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폰세는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다승(17승), 평균자책점(1.89), 탈삼진(252개), 승률(0.944)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을 달성했다.

아울러 KBO리그 최초 개막 17연승,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 등 많은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MVP 시상식에 선 유호 투표 125표 가운데 96표(76%)를 획득, 23표를 받은 르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를 여유 있게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폰세의 MLB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에서 득녀한 폰세는 어린 딸 때문에 이달 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폰세는 2020년과 2021년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20경기에 등판해 1승 7패, 평균자책점 5.86의 성적을 낸 뒤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와 라쿠텐 골든이글스를 거쳐 올해 한화 이글스에서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리그 4호골... 백승호 부상 '홀홀'

어제 부상을 털어낸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비밍엄·사진)가 리그 4호골을 뽑아내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백승호는 2일(한국 시간) 영국 비밍엄의 세인트앤드루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 2025~2026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비밍엄은 전반 43분 더마레이 그레이의 추가 득점으로 달아난 뒤 후반 16분 왓퍼드에 추격골을 내줬지만 더는 실점하지 않고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비밍엄(승점 28)은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의 상승세

챔피언십 18R 풀타임 출전 비밍엄 2-1 승리 힘 보태

를 이어가며 7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9일 마들즈브러와 정규리그 15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5분 만에 어깨를 다쳐 교체된 백승호는 홍명보호의 11월 A매치 2연전에 빠지는 악재를 겪었지만, 회복에 집중하며 지난달 27일 웨스트브로미치와의 17라운드 원정에 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부상 회복을 알렸다.

붉은 빛줄기가 쏟아진 이날 왓퍼드와의 18라운드 홈 경기를 맞아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백승호는 전반 31분 팀의 선제골을 책임졌다.

백승호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볼을 빼앗은 뒤 페널티아크 부근으로 쇄도하고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왓퍼드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이번 득점으로 백승호는 정규리그 4호골을 작성했다.

8월 3라운드에서 마수결이 득점포를 가동한 백승호는 지난달 13~14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골을 맛보며 발끝 감각을 뜨겁게 달궜다가 어깨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부상을 털어내고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는 성과를 냈다.

백승호의 득점에 기세가 높아진 비밍엄은 전반 43분 더마레이 그레이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맛을 보며 승기를 잡았다.

내년 LPGA 투어 티켓을 잡아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켈리파잉(Q)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가 5일(한국 시간) 막을 올린다.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5일간 90홀 경기로 진행된다.

116명이 경쟁해 25위까지 2026시즌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 선수로는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한 방신실(사진), 이동은과 2019년 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 등 8명이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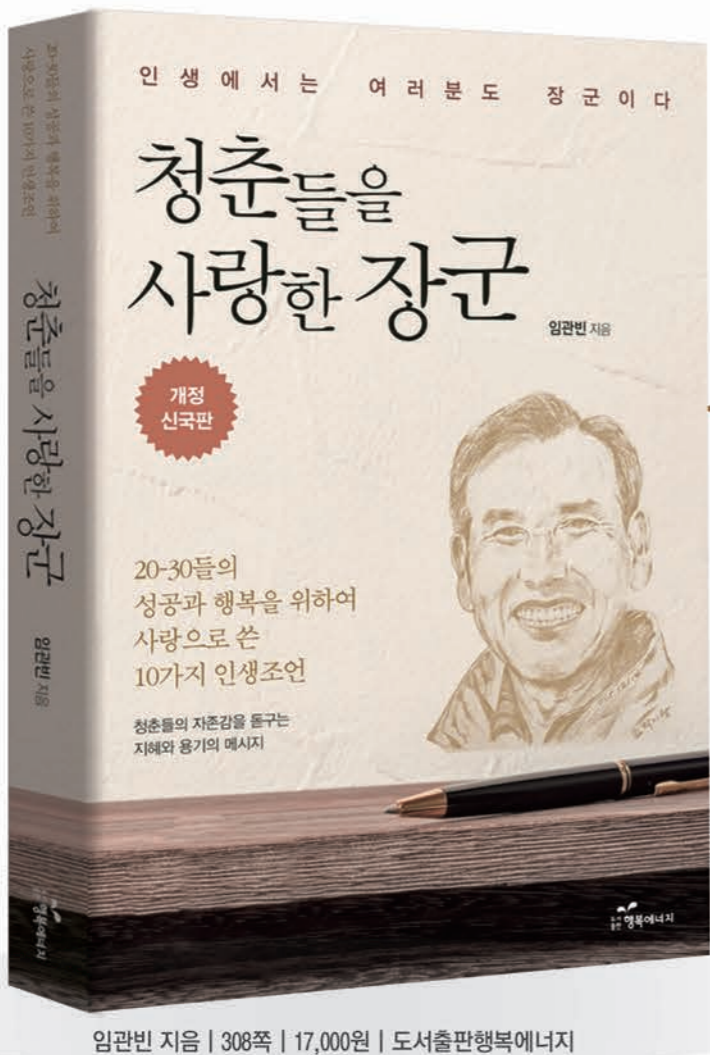
방신실은 올해 KLPGA 투어에서 우승 3회, 준우승 2회 등의 성적을 내고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이동은은 올해 메이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이번 시즌 KLPGA 투어 비거리 부문에서 이동은이 261.10야드로 1위, 방신실이 258.7야드로 2위에 오르는 등 투어를 대표하는 2004년생 동갑내기 장타자들이 나란히 내년 시즌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이정은은 2018년 당시 8라운드 경기로 진행된 LPGA 켈리파잉 시리즈를 1위로 통과, 2019년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톱랭커' 출신이다.

2019년 LPGA 투어 신인왕 예도 오른 이정은은 올해 LPGA 투어 19개 대회에서 6번만 컷을 통과하는 부진 속에 다시 켈리파잉 시리즈를 치르게 됐다. 이들 외에 장효준, 주수빈, 예니 김, 신비, 윤민아도 2026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향해 5일간 경기에 나선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